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본 3·1운동의 재인식:

3·1운동과 여성, 평화를 중심으로

심옥주 부산대학교

논문요약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거국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된 3·1운동과 여성독립운동을 세계평화의 시각에 대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의 거국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된 3·1운동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평화운동의 일환이었다. 특히 3·1운동은 민중운동으로서 계층과 지역, 성별의 구분을 넘어서 독립운동이었으며, 그 시대 독립운동이 지향한 독립과 자유에 대해 평화적 견지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 시대가 당면했던 독립의 과제는 시대적·민족적 견지에서의 독립이었으며, 평화운동의 일환이었다. 둘째, 3·1운동에 참여한 여성은 주체의지로 독립운동의 참여자, 실천자로 변화했으며, 독립운동사에서 한 주류로 한국여성독립운동의 맥락을 이어갔다. 셋째, 3·1운동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미주 등으로 확산되면서 아시아 약소국이 자유 의지를 발휘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저력이 되었다. 이상에서 3·1운동은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재인식되어야 하며, 3·1운동과 한국여성독립운동이 평화운동으로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세계평화, 한국여성독립운동, 평화운동의 재인식, 3·1운동, 세계 평화운동

I. 문제제기

평화는 인류의 일관된 염원이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이념과 체제, 국가 간 갈등은 분쟁을 야기 시키고 평화를 위협했지만, 평화는 일관된 인류의 염원이었다. 동시에 평화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다. 평화는 평화롭게 살 인간의 권리이며, 인간의 생명보호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 그 자체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평화의 개념은 억압과 불평등, 차별, 무장충돌, 더 나아가 평화를 위협하는 분쟁과는 대치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19세기까지 평화는 전쟁을 제한하거나 전쟁의 부재가 주요 관심사였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화 기술화의 급진전은 전쟁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평화운동과 평화적 사유는 국제 평화정치의 변화 속에 등장한 다양한 지류 변화였다(이동기, 2013; David Cortright, 2009).

현대에 이르러 평화의 개념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되었다. 1968년 인도의 스가타 다스굽타는 ‘고난과 궁핍’으로 비평화 상태를 평화의 대립개념으로 규정했고, 1969년 요한 갈통(J. Galtung, 1969)은 ‘평화의 부재로서의 평화’로 평화와 권리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언급하였다. 그는 전쟁을 비롯한 폭력이 부재한 상황을 ‘소극적 평화’, 정치적 탄압이나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 상과지상주의 등 폭력을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와 폭력을 재생산하는 문화적 기제를 극복한 상황을 ‘적극적 평화’라고 보았다(J. Galtung, 1994). 이렇듯 평화의 개념은 개인의 생명보호부터 전쟁, 구조적 문화적 폭력, 그리고 인간의 안전과 생존과 연관되는 범위에 포괄적으로 적용했다.

본고의 주제인 일제강점기 비폭력저항운동인 3·1운동은 민족, 역사, 시대적 특수성에 기초한 평화운동의 관점으로 대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했던 경험은 평화의 기본가치를 위협받으며 국권침탈로 귀결되었다. 국권상실의 경험은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며 투쟁의 일선에 서게 했다. 특히 1919년 3·1운동은 전 민족적 항일운동일 뿐 아니라 독립의지를 국내외로 표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신분과 성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넘어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극하게 표출된 것이었다. 이후 제국주의의 탄압과 억압에 저항하며 자유와 독립, 평화를 갈망했던 주변 아시아 국가의 민족운동에도 큰 자극을 주었다(Geoffrey Best, 1999).

3·1운동의 비폭력저항운동은 민족저항운동임과 동시에 우리민족의 평화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인이 통합하고 양반과 농민, 여성, 상민, 천민, 군인 등 신분의 경계를 초월하여 민족전체가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특히 여성은 집안의 내조자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고 3·1운동의 일선에 나섰다. 그 배경은 근대화의 조류로 개화사상의 확산은 여성의 사회의식을 변화시켰고 일제강점의 현실은 여성으로 하여금 구국운동에 뛰어들게 했다. 이처럼 3·1운동은 민중(民衆)이 독립운동의 주체로 성장하여 생존권 회복과 평화를 향한 저항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렇기에 3·1운동은 민족의 자유, 독립, 인권의 회복을 향한 평화적 가치실현을 추구한 것이었다. 이에 역사학자 김삼웅은 ‘3·1운동은 세계 혁명사에서 초유의 일이었으며 3·1혁명으로서 정명(正名)찾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김삼웅 2018, 26).

3·1운동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3·1운동의 연구범위도 지역별 연구를 비롯하여 천도교·기독교·불교계, 해외지역 3·1운동의 경향 등 다양하게 축적되어왔다(李炳憲 1959; 尹炳奭 1975; 安秉直 1975; 鄭光鉉 1978; 李炫熙 1979;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김 진 2002; 신용하 1993; 박 환 2005; 성 주 2003). 또는 3·1운동의 전개와 정신, 기본성격, 전파 그리고 국외에 미친 영향 등 부가적인 연구도 진척되었다(전택부 1978; 김호성 1998; 황민호 2006; 와다 하루끼 1990). 하지만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변화해야 한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

운동에 참여했던 다양한 계층과 그들이 추구한 활동 면면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3·1운동의 평가를 ‘세계사’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평화의 관점에서 3·1운동에 접근하여 3·1운동과 여성, 평화의 상관관계와 살펴보고 역사적 의의를 찾고자 한다.

II. 연구 접근 시각

역사는 정신과 사상의 산물이다. 민족이라는 운명체는 그 민족의 역사를 쌓아 올린 것이며 민족의 역사는 그 민족의 본질 또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3·1운동은 역사학적으로나 평화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 특히 3·1운동은 평화를 위한 행위와 염원이 전 과정에 점철되어 있다. 일제침탈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포함한 전반의 과정에서 폭력의 다양한 역사적 현상이 첨예하게 대입된다. 더욱이 3·1운동은 민(民)의 자발적인 저항운동이라는 점과 3·1운동이후 독립운동의 국외 확산으로 한국독립운동이 본격화된 투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평화와 관련된 역사적 대상들을 역사학적 방법에 기초하되 역사학적 평화연구의 시각을 대입하고자 한다. 역사적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거의 특수한 영역들을 해명하기 때문에 3·1운동의 역사적 사건은 역사학적 평화연구의 대상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다음의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3·1운동의 역사적 당위성이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며 한국독립운동의 당위성을 국내외에 천명했던 사건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민족의 자주의지는 공식화되었다. 전개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기점으로 민족 전체가 대동단결하여 국내외적에서 항일운동을 실천했으며, 민족구성원 스스로가 기존의 제도와 관습의 틀 ‘경계의 벽’을 무너뜨리며 전개한 민족운동이었다. 또한 3·1운동을 통해서 일제의 식민지 무단통치를 대외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식민통치 하에

있던 우리 민족의 불행과 고통, 그리고 무자비한 식민지 통치의 잔상을 공식적으로 알려서 일제가 대외적으로 비판받게 하는 데 앞장섰다(신용하 1990, 257). 그래서 3·1운동은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둘째, 3·1운동의 역사적 연계성이다. 3·1운동의 주체인 민중과 추구방향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3·1운동 전후의 역사적 사건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었고 독립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구국운동으로 평화실현의지를 실천한 것이었다. 물론 일본 침략이 본격화되었던 3·1운동 이전에도 역사적 사건은 있었다. 동학 농민혁명과 의병운동에서 3·1운동과 의열투쟁, 무장투쟁 등 민중의 끊임없었던 저항은 국외로 이어졌다. 1907년 헤이그에서 열렸던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1907.6.15.~10.27) 및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1차 평화회의(1899.5.18.~7.29)를 통해서 대한 제국은 ‘만국평화’의 대의명분에 기초해 주권회복을 호소해왔다. 그 배경이었던 3·1운동은 조선이 자주국이며 조선인이 자유민임을 천명하는 의도를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요구한 것이었다. 3·1운동이후 국내외로 전파된 민족의지는 세계평화, 인류의 평화에 호소했던 헤이그 특사파견과 평화회의의 노력으로 이어져 인류평화의 가치에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3·1운동의 평화의지는 역사적 연계성을 띠고 있다.

셋째, 3·1운동의 주역인 민(民)의 출현이다. 3·1운동은 1918년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세계 제1차 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월슨이 발표한 14개조 원칙 중에는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1운동 이후 여성, 농민, 천민 등 주목받지 못했던 계층이 저항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함으로써 민(民)의 의지는 드러났다. 1918년 11월 만주와 노령 등지에서 발표된 ‘무오독립선언서’와 1919년 2월 8일 동경유학생이 발표한 ‘2·8독립선언서’, 그리고 한국여성이 독립운동의지를 피력한 ‘대한독립여자선언서’의 발표자도 지도층이 아니었다. 무장투쟁의 일선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동경유학생, 한국여성 등이 독립의지를 문서화했다. 특히 3·1운동을

통해서 여성은 역사현장의 주체로 등장한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의 미국 및 노령지역에서 결성된 부인회 8명(김인중, 김숙경, 김오경, 고순경, 김숙원, 최영자, 박봉희, 이정숙) 연서는 한국여성의 독립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다(국가기록원 2016). 그것은 여성 스스로가 일본침략의 부당성과 합방성립의 불합리성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것이었다. 3·1운동의 과정에서 전국의 여학생, 여교사 및 각계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단체의 참여는 3·1운동에서 여성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이와 같이 민(民)이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어 전개된 3·1운동은 민(民)주도의 침략에 항거한 독립운동으로서 평화의지를 실천한 것이었다.

Ⅲ. 3·1운동의 전개와 평화투쟁적 성격

1. 평화시위 ‘비폭력투쟁’으로서의 3·1운동

3·1운동의 대표적 성격은 평화시위로서 비폭력투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는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인을 비롯하여 교사와 학생, 상인, 농민, 어업인 등 전 계층이 시위에 참여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전개과정에서 평화적인 시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에서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만세운동 참여자는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거나 벽보를 부치는 등 평화적인 만세시위를 이어갔다. 시위에 참여한 민중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오직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만세를 외치거나 시위행렬을 이루며 독립의지를 표현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상호 연합 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전개양상은 3·1운동이 비폭력, 일원화, 대중화 지침에 기초한 비폭력 투쟁으로 실천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매일신보」는 1919년 3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의 시위현황을 자세히 언급하였다. 하지만 3·1운동의 지역별 전개양상과 조선총독부의 대응 인식, 3·1운동의 진압에 투입된 일본군의 동향 등을 기사화하는 과정에

서 주로 3·1운동 관련 민심의 동향을 총독부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는 내용으로 게재되었다(황민호, 2006). 그 배경에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제의 통감부령 제10호 「보안규칙」에서 “신문지 기타 인쇄물의 기사가 외교 는 군사기에 되거나 안녕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 발매 · 반포를 지할 수 있다”라는 국내언론 탄압의 근거 조항과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 1> 3·1운동 당시 각 도별 참여현황(3월~4월)¹⁾

	시위횟수 (A)	평화적 시위(B)	B/A(%)	시위중 충돌	참가 인원수	부.군수
경기	288	181	65	118	약 47만	22
충북	56	28	50	28	약 28만	9
충남	75	35	47	41	약 5만	13
전북	39	32	82	7	약 1만	14
전남	44	41	93	4	수만	18
경북	62	36	58	26	약2.6만	21
경남	121	82	68	39	약11만	21
강원	74	53	72	21	약2.5만	21
황해	137	84	61	53	약7만	17
평남	85	59	69	26	약6만	15
평북	114	66	58	48	약15만	18
함남	75	57	76	18	약2.5만	15
함북	44	36	82	8	약2만	11
합계	1,214	788	65%	426	약111만	212

3·1운동은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진남포, 원산, 함흥 등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조지훈의 3·1운동 관련 자료에 따르면, 3·1운동의 과정에서 1919년 10월까지 일제에 의해 검거된 사람은 1만 8천여명에 이르렀고, 검거된 대상자는 보안법 위반 6,472명, 소요죄 2,289명, 내란죄 296명, 기타 232명 등 모두 9,289명에 육박했다(조지훈 2010, 140)고 하였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는 3월 1일부터 5월

1) <표 1>은 김진봉의 “3·1운동과 민중” 논문의 표를 기초하되, 평화적 시위의 참여정도를 알기 위하여 시위횟수 대비 평화적 시위횟수를 비율화하여 전국적인 평화시위의 정도를 구체화했다.

말까지 사망자가 7,509명이었으며, 부상자 1만 5,961명, 구속자 4만 7,949명, 방화된 교회당 47동, 방화된 학교 2동, 방화된 민가 715호에 달하는 등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다(김삼웅, 2006). 또한 3·1운동의 3월부터 4월까지의 각 도별 시위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시위횟수와 평화적 시위, 시위 중 충돌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평화적 시위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나타난 1919년 3월부터 4월 사이 전국의 시위횟수는 1,214회였다. 그 중에서 전국의 시위횟수 대비 평화적 시위는 788회로 65%에 해당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위횟수가 많았던 지역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 경상도, 평북 순이었으며, 평화적 시위 횟수가 높은 지역은 전남, 전북, 함북, 함남, 강원 순이었다. 이상에서처럼 앞선 자료에 기초해서 본다면, 3·1운동에 전개된 전국 시위는 65%가 평화적 성격의 시위로 진행되었으며 약 111만이 참여한 거국적인 규모였다.

<표 2> 3·1운동 당시 기소된 대상자 직업별 통계

직업	참여자수(명)	비율(%)	세부내용
농. 어업	5,074	57	농업이 다수, 어업종사자는 17명
지식인	1,929	21	교사, 학생, 면장, 서기, 면직원, 승려, 의사, 대서업, 목사, 전도사, 사무원 등
수공업	263	3	각종 제조업과 광업, 야금, 토목, 건축, 토석채취, 제조업 등
상업	741	8	곡물, 매약, 잡화, 중개, 고물상 등
서비스업	259	3	의복, 세탁, 인쇄, 사진, 운수, 음식, 하숙 등
노동, 실업자	611	7	비복, 일용직, 노동자, 무직자 등
합계	8,877	100	

박성수의 3·1운동 당시 기소된 대상자의 직업별 통계자료에서도 3·1운동의 민족운동적 성격이 나타난다. 직업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참여

계층에서 농·어업에 종사자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 외에도 교육계를 포함한 지식층, 수공업, 상업, 서비스업, 노동, 실업자 등 전 계층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성수 1980, 319). 지식층은 교사, 학생, 면장, 서기, 면직원, 승려, 의사, 대서업, 목사, 전도사, 사무원 등 폭넓게 참여했으며 민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3·1운동의 참여층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이 참여했다는 것은 <표2>에서 나타난다.

2. 비폭력저항으로서의 ‘여성’ 3·1운동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여성의 참여가 활발했다는 점이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서 한국여성은 절렬한 항일구국정신을 발휘하며 적극적인 국채보상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경험에 이어 3·1운동에서 여성은 보다 조직적이었고 참여의 폭이 넓었다. 근대화의 조류 확산과 근대교육기관에 수학한 여성지식인의 증가함에 따라 여성도 주체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사회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3·1운동 이전에 발표된 여권통문과 독립신문, 순성회 등도 여성 스스로가 남녀동권의식을 인식하며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던 배경과도 맞물려 있다. 그 배경 하에 여성의 3·1운동 참여는 여성도 국가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례였다.

3·1운동을 준비했던 교사, 학생 등 여성지식인과 일반여성의 협력은 이후 전국의 여성단체 출현으로 이어졌다. 개성의 호수돈 비밀결사대와 송의여학교의 송죽결사대, 이화학당의 이문회 등 교사와 여학생 중심의 비밀결사대가 결성은 여성단체이 시초적 성격을 띤다. 또한 당시 사회의 비주류에 있었던 기생과 상인들도 3·1운동에 참여하며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했다(심옥주 2015, 131).

3·1운동에서 여성은 비폭력저항운동을 실천한 상징적 존재로 부각되었다. 1919년부터 1929년에 걸쳐 서울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된 <표 3> 경성 시내 여학교 만세사건 보고공판 개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3·1운동 참여가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성시

내 만세사건의 보고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학생의 참여현황은 경성소재 여학교는 10개교였고, 생도총수 1,929명 중에서 참가한 생도 수는 1,926명으로 99.8%의 참여율을 보였다(이윤희 1995, 72). 다시 말해서 3.1운동에서 여학생은 대부분 만세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경성 시내 여학교 만세사건 보고공판 개황

학교 구분	생도 총 수	만세 참가수
이화여자고보교	310	전체 참가
동덕여자고보교	190	전체 참가
배화여자고보교	200	전체 참가
숙명여자고보교	406	전체 참가
경성여자상업교	282	전체 참가
경성여자고보교	48	전체 참가
태화여자학교	103	전체 참가
경성실전여학교	112	전체 참가
정신여학교	13	전체 참가
근화여학교	265	3명 제외 전체 참가
10개교	1,929	1926 참가

<표 3>의 내용에서 볼 때, 참여한 여학생이 모두 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전체 학생수 대비 참여학생의 비율이 99.8%에 육박했다는 것은 당시 여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현재 남아있는 서대문형무소의 수형기록 자료를 살펴보면, 여성은 54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직업을 구분해보면 전 계열에서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26명), 교사(8명), 개신교인(8명), 간호사(4명), 기생(2명), 이발업(1명), 무직(2명)으로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앞선 <표 2>의 여학생 참여도가 높은 것과 비례하는 결과였다.

1920년도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자료에 의하면, 1919년 3월부터 12월 까지 만세시위로 검거된 대상자는 2만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확히는 19,054명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 중에서 7,81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 전국에서 검거된 여성은 471명으로 참여

도가 높았다. 이상에서처럼 3·1운동의 비폭력 평화투쟁으로서의 성격과 그 과정에서 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는 비폭력 평화투쟁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IV. 3·1운동과 여성, 평화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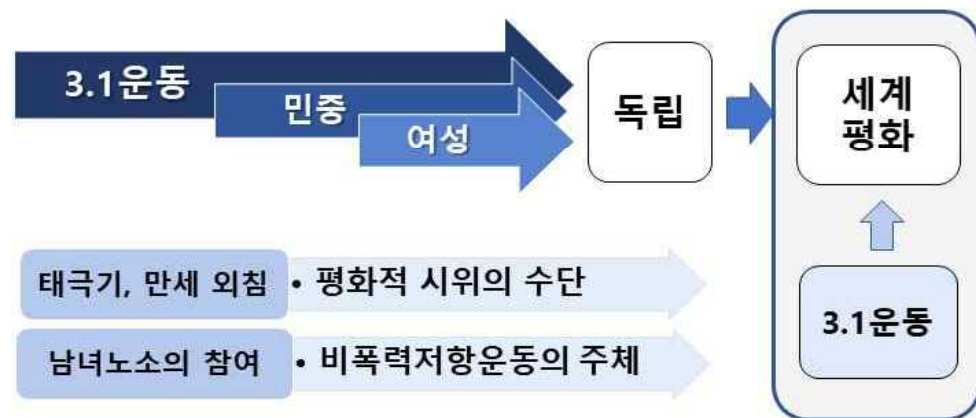
1. 3·1운동의 역사성과 세계평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되어있듯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국치 9년 만에 민족 전체가 독립을 외치며 만세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전개과정에서 3·1운동은 비폭력 투쟁으로 전개된 해방투쟁이었다는 점이다. 3·1운동은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 있던 약소국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다. 1919년 4월 5일의 인도 ‘사타야 그라하 사브하(진리수호운동)’과 중국의 5·4운동, 필리핀 등 아시아 식민지해방운동에 영향을 주어 외세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던 약소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이처럼 3·1운동의 국내외적 의미와 역사성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1운동은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탄압하는 외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순수한 독립운동이었다.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실현하겠다는 민족전체의 의지가 전국의 만세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국내외로 전파되면서 민족해방운동의 물결을 이루었다. 둘째, 3·1운동의 수단이 불합리에 저항하고 부당함에 저항한 비폭력저항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총과 칼이 아닌 표현물인 태극기 제작과 배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했던 학생의 참여는 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활동이 평화운동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셋째, 3·1운동의 주체가 바로 전국의 남녀노소이며,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희구한 민중이었다는 점이다. 3·1운동의 과정에서 전국의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학생, 일반인이 투옥되었으며, 평화운동의 대열에 섰다. 이처럼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그 목적과 지향방향이 독립이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의 회복은 곧 세계평화의 실현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도는 <그림 1>의 3·1운동의 역사성과 세계평화의 관계도에서 정리하였다.

<그림 1> 3·1운동의 역사성과 세계평화의 관계



2. 3·1운동의 여성참여와 유관순열사

3·1운동 당시 신한촌에서 발행된 <자유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²⁾

‘오호라 자유 자유를 위해 희생이 되리라 아 동포 2천만! 특히 오여자등! 자유의 권세가치가 여하히 고귀한가를 동포는 생각하지 않느냐...’

3·1운동은 민족자유를 향한 비폭력저항운동이었다. 신분과 종교, 성별의 경계를 넘어 전개된 민족저항운동임과 동시에 민족 모두가 평화메시지를 함유하고 있었다. 특히 전개과정에서 여성의 활약은 놀라웠다. 이화학당과 경성여고보, 숙명여고보, 배화여고보 등 경성의 여학교

2) 『自由報』, 第1號, 1919/05/31.

를 비롯하여 개성의 호수돈여학교와 평양의 숭의여학교 등 전국의 여학생은 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열사’를 통해서 우리는 3·1운동의 비폭력성을 공유하고 있다. 충남 천안 출생으로 3·1운동으로 가족이 순국하고 감옥에 송치되었지만, 경성복심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며 일제에 저항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들을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

‘3·1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하여 왜병에 피검돼 옥중에서 타살당함’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관순 일가족과 유관순의 정황은 일제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공주재판소에 수감된 뒤에도 법정의 항변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였던 ‘여학생’의 순수함과 잊혀진 민족정신을 다시금 상기시켜주었다. 당시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었던 여성은 여학생, 교사, 지도자, 여성단체 등 전국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1운동 전후에도 여성의 활약은 이어졌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1899년부터 1900년 사이의 6개였지만 1940년까지 64개의 단체가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다(심옥주 2015, 47). 3·1운동에서 여성의 활발한 참여는 2017년 12월말 기준, 서훈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는 296명인데, 그 중에서 3·1운동 부문 서훈자가 93명으로 전체 여성독립유공자 중 31%에 해당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비록 전체 독립유공자 대비 3%가 여성독립운동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3·1절’이면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는 것은 3·1운동의 여성 활약과 당시 평화메시지를 보여주었던 비주류계층 또는 비폭력을 실천한 민중운동이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V. 평화운동으로서 3·1운동의 재해석

1.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 인식과 3·1운동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전쟁의 가능성 또는 권력의 외압으로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화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지난 우리역사에서 일제강점기도 독재와 억압, 수탈이 지속되면서 전쟁 유발의 가능성을 안고있는 비평화상태였다. 그 시기에 3·1운동은 민족의 주체적인 평화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3·1운동은 제국주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추구한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실현을 추구한 것이었다. 인류의 보편적인 추구방향, 보편적이라는 함은 어느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여 널리 통용되는 것이다. 그 의미와 견주어볼 때 3·1운동은 국가와 국가구성원, 그리고 평화가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평화’였다. 그리고 평화실현을 위한 자유의지를 3·1운동으로 실천하였다.

3·1운동은 추구방향과 활동의 당위성이 선언문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조선의 자주국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천명했으며, 그 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한국의 근대국민국가 수립운동의 결실과도 같았다. 그 기초 하에 독립운동가들은 3·1정신을 이어 중국을 비롯하여 만주, 러시아, 미주, 멕시코, 하와이,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외교활동과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만주와 연해주의 한인이주와 독립세력 형성, 하와이의 노동이민자에 의해 형성된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 중국 본토지역 및 간도일대, 상해와 북경일대, 일본 본토와 미국 본토지역, 쿠바, 멕시코 등에서는 한인 친목회가 조직되었고 해외교민의 독립운동 거점 망을 형성해나감으로써 국내외의 독립운동은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

다(김희곤 2005, 225).

3·1운동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독립운동은 자국의 독립실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향한 자유의지의 실현을 추구한 것이었다. 특히 민(民) 주도의 비폭력 투쟁은 국가구성원이 화평을 추구한다는 의지를 상기시켜 주었으며, 민족전체가 자유를 회복하려는 평화의지를 대외적으로 확고히 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3·1운동은 인류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의 인식을 기초로 제국주의에 저항한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

2. 역사적 사회과학의 견지에서의 3·1운동

3·1운동을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인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역사적 의의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대외적으로는 3·1운동의 자유와 독립, 평화의 의미를 계승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3·1운동은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에 희생당한 식민국가의 격화된 외침이었다. 전쟁과 평화라는 국제적인 권력관계의 집합 속에 불가항력적으로 희생당한 식민국가의 수용 거부의 표현이 표출된 것이었으며, 국내외적 권력 갈등 속에 식민 국가는 제국주의 국가를 향해 그 원인과 비평화적 책임에 대한 민중의 자각이었다(Rohlfes 1978, 761).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었던 여성, 노인, 학생들도 일제의 침탈에 당당히 맞서며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문화운동, 국내 항일운동, 의열투쟁, 중국방면활동, 만주방면활동, 러시아, 미국 등지의 독립운동에서 활약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의 탄압과 억압으로 채워진 역사의 기억을 상기하는 만큼 역사를 통해 비평화적 책임과 평화적 수용자세를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이고 미래 방향의 모색을 해나가는 중요한 지침이다. 특히 ‘3·1운동’은 제국주의와 식민국가의 지속적인 갈등과 평화추구의

과정에서 나타난 민중저항운동이었으며, 그 경험을 통해서 평화와 비평화의 교훈을 상기할 수 있다. 또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통해서 내제된 민족적 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의 인식과 ‘실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재해석이 필요하다.

첫째, 3·1운동에 내제된 민족성과 평화정신에 주목해야 한다. 3·1운동의 비폭력저항운동은 민족저항운동임과 동시에 우리민족만의 평화메시지를 공유한 저항이었다. 다양한 종교인이 통합하고 양반과 농민, 여성, 상민, 천민, 군인 등 신분의 구분경계가 무너졌고 좌우익간의 이념구분의 경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중심의 틀을 향해 민(民)은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양반의 신분학대와 멸시에 저항했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만세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구국의지를 실천했다.

둘째, 3·1운동을 세계평화 시민운동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파리강화회의에서는 14개조 평화원칙을 의결과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를 수용하며 일본 도쿄 중심에서 ‘2·8독립선언’을 외쳤고, 3·1운동으로 일어섰다 그렇기에 3·1운동은 폭력에 입각한 정복과 착취를 일삼은 제국주의-강자의 민족주의-를 폭로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시민의 각성을 요구한 것이었다(김태완 2016, 78).

셋째, 3·1운동은 ‘역사적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의 과정’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민족주결권의 주장, 국제기관을 통한 독립의지강조,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을 통해서 3·1운동의 방향성은 국내외의 독립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시각은 동양평화, 세계평화로 귀결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을 강조하여 열강의 식민지배가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에 방해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야금 정당한 명명을 수케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야금 사로로서 출하여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전케하는 것이며

지나로 하야금 몽매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 공포로부터 탈출케하는 것이며,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는 것이라 ...

안중근의 동양평화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찾는 것이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아시아 국가가 식민지배를 당하는 것은 동양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3. 남북한 민족통합모델로서 3·1정신을 기억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헌법을 공포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명시하였고, 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명문화하여 독립운동의 주체가 인민, 시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수립 이전에는 독립운동의 명문화가 되지 못해서 지향방향에 대한 본원적인 고찰이 부족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3·1운동이다. 그렇기에 3·1정신의 역동성은 오늘날 추구해야 할 민족통합정신이며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시각이 필요하다.

먼저 3·1정신을 ‘역사적 평화교육’으로 주목해야 한다. 3·1운동은 민족적 특수성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특수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였다. 그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평화교육은 출발해야 하고 ‘평화를 통한 역사교육으로의 접근’으로 확장해야 한다. 국내외적 정치상황과 3·1운동의 특이성을 교훈화시킬 수 있는 평화교육의 학습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3·1운동을 남북한 민족통합모델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평화는 늘 주요관심사가 되어왔다. 대립과 갈등, 통합과 평화가 연구의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지만, 분단에서 통합, 통

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해답은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그 사례로 3·1운동에서 보여준 민족통합의 경험은 평화와 비평화의 역동성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문제의 해결도 민족통합의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3·1운동이 함유한 평화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3·1운동의 평화 메시지를 통합 콘텐츠와 평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달해나가야 하며, 3·1운동이 세대간 공감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3·1운동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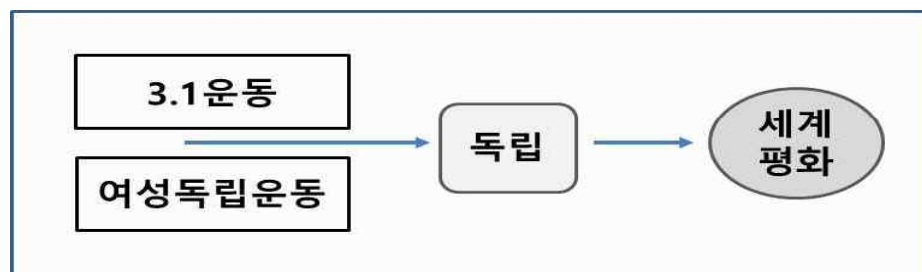
3·1운동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대응하여 전쟁과 평화의 본질적 의미를 주목시킨 역사적 사건이지만 자국역사의 시각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는 데 머물고 있다. 하지만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발화점이 되었으며, 기존의 신분질서가 스스로 혁파되어 독립의 실현을 공유하고 실현시키는 데 공통분모를 찾은 역사적 사건이다. 특히 사회주도의 비주류계층이었던 여성과 농민, 군인, 학생, 천민 등 신분의 구분과 지역, 연령의 경계를 허물고 오직 공통분모였던 ‘독립’의 목표에 집중했다. 그렇기에 3·1운동은 경계의 틀을 넘어서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한 평화의 몸짓이었다. 총칼 대신 태극기와 선언서를 들고 독립을 외치며 비폭력저항운동으로 일어난 3·1운동은 기득권 주도의 사회운동이 아닌 민중이 평화시위의 주역으로 거듭났던 평화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이제는 3·1운동을 세계사의 범주에서 살펴보고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 분단의 상황을 인지할 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민족전체가 평화를 실현했던 역사적 사례라는 점에서 통합과 갈등, 통일의 과

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3·1운동은 민족해방운동, 비폭력투쟁운동, 평화회복운동이었다. 3·1운동은 그 주체는 특권 계층이 아니라 민(民)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民)에 의한, 민(民)이 주도한 운동’으로서 근대시민사회의 주역이 바로 민(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이후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할 것을 예고한 것이었다.

3·1운동 이후 여성은 독립운동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평화 메시지 전달의 주역으로 성장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여성의 활동범위는 국내에서 국외 독립운동으로 확장되었으며 여성 또한 독립운동의 한 주류로 성장하여 독립운동이 한 맥락을 형성했다. 이런 시각에서 3·1운동과 여성, 평화의 관계를 <그림 2>로 정리했는데, 3·1운동의 목표는 ‘독립’이었으며 민족 모두가 추구하는 방향은 세계평화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2> 3.1운동과 독립, 평화의 관계



이제 3·1운동을 세계평화를 향한 민족 전체의 몸짓이었다고 주목하고 3·1운동의 평화 운동적 성격을 주지시켜나가야 한다. 3·1운동은 제국주의의 속박을 탈피하여 독립을 향해 민족의지를 실천한 평화운동이었다. 일제강점기 국권 상실과 독립운동의 의지가 곧 민족의 자유였고, 평화실현의 추구였다. 이런 시각에서 통일을 향해 통일 이후 민족 간의 통합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3·1운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역사를 기초로 평화적 시각을 대입하는 ‘역사적 평화교육’

이 실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전 세대가 공감하고 평화 의지를 기억해나갈 수 있도록 3·1운동을 남북한 민족통합 모델로 주목하고 다양한 3·1운동의 평화 콘텐츠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평화의 실현에 기여한 3·1운동을 현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적 가치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규. 2010. “동아시아의 전환기 경험과 새로운 세기의 시대정신.” 『한국학연구』 32. 서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국가기록원. 2016. 『여성독립운동자료집(3·1운동편)』. 국가기록원 자료집.
- 김삼웅. 2006. “유관순 열사와 서대문형무소.” 『3·1운동기 여성과 서대문형무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6/11/01.
- 김삼웅. 2018. “3·1혁명과 여성독립운동.” 『세계평화의 길, 한국여성독립운동에서 찾다』. 3·1운동과 여성 대토론회 자료집. 2018/01/29 .
- 김 진. 2002. 『3·1운동사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김정아. 2015. “잊혀진 여성독립운동가의 현황과 발굴, 선양방안.” 광복 분단 70주년 기념 대토론회 『통일의 길, 한국여성독립운동에서 찾다』. 2015/2/25.
- 김진봉. 1995. “3·1운동과 민중.” 『3·1운동 5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 동아일보사.
- 김호성. 1998. “3·1운동과 한국민족주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 서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박성수. 1980. 『독립운동사연구』. 서울: 창작과 비평.
- 박용옥. 2001. 『한국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서울: 지식산업사.
- 박이문. 2000. “역사서술과 사관의 문제.” 『한국사 시민강좌』 27. 서울: 일조각.
- 박 환. 2005. 「용인지역 3·1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 성 주. 2003. “수원지역 3·1운동과 천도교인의 역할.” 『수원지방 민족운동사의 역사상』.
- 신용하. 1991.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평가.” 『한민족독립운동사』 10.
- 신용하. 1993. “3·1운동 연구의 단계와 과제.” 『한민족독립운동사』 12.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심옥주. 2015. 『한국여성독립운동과 국가보훈』. 서울: 도서출판 정언.
- 심옥주. 2013. “한국여성독립운동가의 보훈예우현황에 관한 분석.” 『한국보훈논총』 제12권 1호. 서울: 한국보훈학회.
- 심옥주. 2015. “한국여성독립운동가의 지역활동 특성에 관한 고찰.” 『통

- 일의 길, 한국여성독립운동에서 찾다』. 서울: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 安秉直. 1975. 『3·1運動』. 서울: 한국일보사,
- 와다 하루끼. 1990. “아시아해방사에 3·1독립운동.” 『기독교사상』 34.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尹炳奭. 1975. 『3·1運動史』. 서울: 正音社.
- 李炳憲. 1959. 『3·1運動秘史』. 時事 時報出版局,
- 이윤희. 1995. 『한국민족주의와 여성운동』. 서울: 신서원.
- 이현희. 2003. 『한국근대여성개화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 李炫熙. 1979. 『3·1運動史論』. 서울: 동방도서.
- 장석흥. 1999. “3·1운동과 국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집. 서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전택부. 1978. “3·1운동의 정신과 그 배경.” 『기독교 사상』 2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鄭光鉉. 1978. 『三・一運動史: 判例를 통해서 본』. 서울: 法文社.,
- 조지훈. 2010. 『한국독립운동사』. 서울: 나남.
- 차기벽. 1979. “식민지독립운동으로서의 3·1운동의 비교론적 고찰.” 『현상과 인식』 제3권 1호.
- 한규무. 2004. “기독교와 천도교의 3·1운동 협력에 대한 평가와 오늘날의 의미.” 『기독교사상』.
-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3·1민족해방운동연구』. 서울: 청년사.
- 황민호. 2006.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의 전개와 조선총독부의 대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6. 서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Galtung, Johan, 1994. *Human Right in Another Key*, Cambridge Polity Press.
- Geoffrey Best, 1999. *Peace Conferrences and the Century of Total War; The 1899 Hague Conference and What Came After*, International Affairs(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4, Vol. 75, No. 3, Jul.

투고일 : 2018년 2월 15일 · 심사일 : 2018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8일

* 심옥주는 부산대학교에서 문학박사와 동의대학교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인증원 강의전담교수,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통일의 길, 한국여성독립운동에서 찾다』, 『한국여성독립운동과 국가보훈』, 『윤희순 연구』 등이 있고, 대표논문으로는 "여성독립운동가의 지역 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논총』 제14집 2호(2016) 등이 있다.

〈Abstract〉

**New Understanding of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View of World Peace : Focused o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Women's, peace**

Sim, Ok-Joo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focused on viewing the March 1st Movement, a national movement uprisen nationwid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women's independence movement from an angle of worldpeace. The March 1st Movement was held nationwide when our national sovereignty was lost, and it can be defined as a form of peace movement in view of world history. Particularly, the March 1st Movement was the people's independence movement without distinction of class, region and sex. The direction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freedom impli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at time period needs to be interpreted newly in view of world peace. Firstly, the urgent task to complete during that period was to accomplish independence in view of the times and the national people, and it was a form of peace movement. Secondly, the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changed into spontaneous participants or activists for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reafter, continued a history of women's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Lastly, the March 1st Movement became widespread domestically and to foreig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Russia, Europe and America, so that its spirit of freedom and peace appealed to the weak countries in Asia. Furthermore, it worked as a spiritual support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As mentioned above, the March 1st Movement needs to be newly understood in view of world peace, and, out of that movement, Korean women's independence movement deserves a highlight as a peace movement stream in the world history of women.

Key words : World peace, Korean women's independence movement, New understanding of peace movement, March 1st Movement, World peace movement